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말레이시아

Federation of Malaysia

2018년 9월 27일 | 책임조사역(G3) 이자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30천 km ² 	인구 32.05백만명 (2017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연방형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GDP 3,145억 달러 (2017년) 	1인당GDP 9,813 달러 (2017년) 	통화단위 Ringgit 	환율(\$기준) 4.30 (2017년) 

-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11개 주는 말레이 반도 남부(서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2개 주(Sabah, Sarawak)는 보르네오 섬 북서부(동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음. 서말레이시아는 태국, 싱가포르와 인접해 있으며, 동말레이시아는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음.
- 말레이계 50%, 중국계 23%, 인도계 7%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교는 이슬람교이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 경제의 대부분은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레이 원주민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해 왔음.
- 2018년 5월 제14대 총선에서 마하티르 전 총리가 이끄는 야당연합(PH)이 승리하여,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첫 정권교체를 이루었음. 1981~2003년까지 집권했던 마하티르는 세계 최고령(93세)의 국가지도자로서 제7대 총리로 취임하였음.
- 원유, 천연가스, 팜오일, 천연고무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기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공업화에 성공한 중소득국임. 2020년까지 고소득국 진입을 위하여,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 등의 신경제 모델을 적극 추진 중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0. 2. 23 수교 (북한과는 1973. 7. 2)

주요협정 무역협정('62), 항공협정('67), 이중과세방지협정('83), 과학기술협력협정('86), 투자보장협정('89), 자원협력양해각서('95), 형사사법공조조약('13), 범죄인인도조약('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7,735,293	7,533,347	8,044,985	반도체, 석유제품(경유 등), 디스플레이
수 입	8,609,437	7,507,773	8,714,718	천연가스, 석유제품(중유 등), 컴퓨터부품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총투자기준) 841건, 5,152,593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제성장률	6.0	5.0	4.2	5.9	5.3
소비자물가상승률	3.1	2.1	2.1	3.8	3.2
재정수지/GDP	-2.7	-2.6	-2.6	-2.9	-2.7

자료: IMF, EIU

• 민간 소비 증가 등을 바탕으로 5%대 경제성장 지속

- 2016년 경제성장률은 수출물량 및 관광수입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되며 성장률이 4%대로 하락하였으나, 2017년은 민간소비 증가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5.9%의 성장률을 시현함.
- 임금상승 및 고용증대 등의 영향으로 민간부문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성장률이 상승함.

* 2017년 산업별 경제성장률 : 서비스업 6.2%, 제조업 6.0%, 농업 7.2%, 건설업 6.7%, 광업 1.1%

- 2018년에도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2017년 5.9%보다는 다소 감소되나, 제조업·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및 꾸준한 민간소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여전히 5%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수출 상위 4개국 : 싱가포르, 중국, 미국, 일본

** 2017년 GDP 산업별 분포 : 서비스업 54.5%, 제조업 23%, 농업 8.2%, 건설업 4.6%, 광업 8.4%

• 2017년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높아졌으나, 2018년에는 물가상승률 둔화 전망

- 2015~2016년에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영향으로 2%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식료품 및 주택가격 상승,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3.8%로 상승하였음.
- 2018년 상반기에는 신선식품 가격 안정 및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세율 인하 등의 영향을 받아 1.7%(1분기) 및 1.3%(2분기)의 완만한 물가상승 추세를 시현하였으며, 연료보조금 제도 부활 및 연료가 상승 억제 등 새 정부의 주거비용 절감 정책에 따라 2018년 물가상승률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인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중단 등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

- 마하티르 정부는 대외부채가 약 2,500억 달러(GDP의 80%)에 이르러 통계자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중단 및 연기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2018년 8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존에 진행하던 3개 프로젝트*의 취소를 통보함.
 - * 말레이시아 본섬 및 보르네오 섬에서 추진되던 석유·가스관 프로젝트(2개, 총 20억달러), 말라카와 페트로나스 정유소를 잇는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7.95억 달러)임.
- 동부해안철도건설사업(ECRL)*에 대해서도 과도한 사업비** 책정 및 사업조건 변경 등을 주장하며 연기 또는 취소할 예정임.
 - * 동북부의 태국과의 접경지역인 코타바루(Kota baru)에서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를 거쳐 말라카해협의 클랑까지 총 688km에 이르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
 - ** 기존 150억 달러 수준에서 최근에 약 810억 링깃(200억 달러)로 증가, 총 사업비 중 85%가 중국 수출입은행 지원
- 2018년 9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외채무 관리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와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철도(HSR) 프로젝트 시행을 2020년 5월말로 연기하기로 합의함

• 세제 개편을 통한 민간 소비 촉진 및 경제 부양 추진

- 정부는 상품·서비스세율(GST)을 기존의 6%에서 0%로 조정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2015년 4월에 폐지된 서비스·판매세(SST; Service and Sales Tax)를 재도입(서비스세 6%, 판매세 10%)하는 세제개편안을 시행함.
- 이를 통해 물가상승률 완화 및 민간 소비 촉진이 기대되나, 기존 GST를 통해 올해 약 53억불의 수입이 기대되었으나 SST를 통해서서는 예상되는 정부수입 규모가 10억불 정도에 불과하여, 정부의 재정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 상 수 지	14,835	9,001	6,996	9,370	8,673
경상수지/GDP	4.4	3.0	2.4	3.0	2.4
상 품 수 지	34,605	27,944	24,534	27,249	25,656
상 품 수 출	207,483	174,631	165,520	187,929	207,856
상 품 수 입	172,878	146,687	140,986	160,680	182,200
외 환 보 유 액	114,572	93,979	93,072	100,878	109,389
총 외 채	159,887	152,005	168,371	175,827	185,776
총외채잔액/GDP	47.3	51.3	56.8	55.9	62.4
D.S.R.	17.9	21.4	23.5	22.9	22.7

자료: IMF, EIU

• 제조업 등 주요산업 지속 성장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지속

- 2017년에는 제조업의 성장 등 주요 산업의 성장세 지속 및 수출 증가로 인하여 경상수지 흑자세가 지속되었으며, 흑자규모도 GDP대비 3.0%으로서 전년(2.4%)대비 확대됨.
- 2017년 기준, 수출비중이 38.2%로서 가장 높은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이 전년대비 6.2%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함.
- 2018년에는 수출 및 수입 활동 모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민간 소비 증대 및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폭은 다소 축소되어 약 2.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운송비 지출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전망

- 경상수지 전체로는 흑자가 지속되나, 서비스 분야에서 여행 산업의 성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수출 지향적인 경제 특성상 운송비 지출의 영향을 받아 당분간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 최근 수년간 악화된 외채지표가 2017년에 개선되었으나 모니터링 지속 필요

- 2013년 이후 총외채규모가 외환보유액을 초과하였으며, 2017년에도 총외채규모(1,758억 달러)가 외환보유액(1,009억 달러)을 상회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2017년 중장기 외채가 총외채의 약 71.2%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외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16년 79.4%에서 2017년 74.5%로 축소되었고,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중은 55.9%로 전년(56.8%)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D.S.R도 2016년 23.5%에서 2017년 22.9%를 기록하는 등 외채지표가 다소 개선되었음.

구조적취약성

• 국제금융시장환경 변화에 민감한 금융구조

-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의 채권보유 비중이 높고 외국자본 유출시 유동성 위기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Bank Negara Malaysia)은 2018년 1월 정책금리(OPR; Overnight Policy Rate)를 0.25%p 인상하였음(3.00% → 3.25%). 신정부는 말레이시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3.25% 정책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링깃화 환율은 2018년 1분기에는 중앙은행(BNM)의 정책금리(OPR) 인상에 힘입어 전년말 대비 하락하였으나, 2분기 이후에는 신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외국인 증권투자금 이탈, 미 달러화 강세기조 등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달러대비 링깃 환율(기말) : 4.06('17년말) → 3.86('18.1Q) → 4.04('18.2Q) → 4.11('18.8월)

성장잠재력

• 주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인프라 환경 및 기업경영여건 양호

- 2017년 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인프라 부문에 있어 전체 138개국 중 22위를 기록 중이며, 부문별로는 철도(14위), 도로(23위), 항로(21위) 및 전력공급(36위)임.
- 또한, 기업의 자금 조달, 자유로운 과실송금 보장 등 제반 기업경영 여건이 양호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함.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IFC)의 2017년 기업경영 여건(Doing Business) 종합순위는 24위임.

•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 보유

- 국토의 5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연고무와 팜오일이 풍부하여 세계 주요 자원수출국임. 또한, 원유, 천연가스, 주석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및 자원 개발에 유리함.
- 팜오일의 경우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2위 생산국임. 최근에는 화장품 및 바이오디젤의 주원료로 주목을 받으며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관광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 마련

- 2018년 3월 말레이시아 관광청은 '통합 추진계획 2018~2020'을 수립하여 여행산업의 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로 지정하는 등 관광산업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8년말 개장 예정인 세계 최초의 '20th Century Fox World' 등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여 세계 10대 관광국으로 도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특히 코타키나발루가 위치한 사바 지역은 서울·홍콩·싱가포르·자카르타·타이페이·마닐라·브루나이 등을 연결하는 100여개의 국제 항공편을 이용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 체험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각종 컨퍼런스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음.

정책성과

-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n Plan)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
 -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연 5~6%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2015년 대비 노동생산성 19.7% 향상 및 월평균 가계소득 71.6%(1,781달러→3,057달러) 증가, 1인당 GNI 15,000달러 이상(15,690달러)의 고소득국 진입 등 다양한 목표를 설정함.
 - 경제변화프로그램(ETP :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석유·가스, 팜 오일, 금융서비스, 유통업, 전기전자, 관광업 등 12개 주력경제 분야(12 National Key Economic Area, NKEA) 육성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3차 산업마스터플랜(IMP3, 2006~2020) 수립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2006년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는 '제3차 산업마스터플랜(IMP3, 2006~2020)'을 수립한 이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2006~2020년 중 연평균 제조업 5.6%, 서비스업 7.5% 등 전체적으로 6.3%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함. GDP 비중은 서비스업은 58.1%(2006년)에서 66.5%(2020년)으로, 농림·수산업은 8.2%(2006년)에서 7%(2020년) 수준으로 조정될 계획
- **양자간 및 ASEAN FTA, CPTPP, RCEP 등을 통해 시장개방 가속화**
 - 일본, 파키스탄, 인도 등 총 7개 국가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으며, ASEAN* 차원의 다자간 FTA에도 가입하였음.
 -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for South-East Asian Nations)으로 1967년 8월 설립되어 현재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총 10개국으로 구성
 - EU와는 2015년 12월 이후 FTA 협상을 재개하였고, 2016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의 비준 및 서명을 완료하였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도 협상 중에 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과 2018년 3월에 서명을 완료함.
 - *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 10월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나,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 선언을 하였음(참여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멕시코, 페루, 칠레, 브루나이)
 -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
 - *** 미국의 탈퇴로 동력을 잃었던 TPP는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CPTPP)'을 체결하여 재탄생하였으며, 실제 발효는 2019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치동향

• 독립 후 61년만에 첫 정권 교체

- 통합말레이기구(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UMNO) 중심의 14개 정당연합인 국민전선(Barisan Natioanal: BN)은 1957년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줄곧 장기집권하였으나, 2018년 5월 총선에서 야당의 연합체인 희망연대(Pakatan Harapan)가 113석을 얻는 등 범야권이 총 124석을 얻음으로써 정권교체를 이룸.

• 나집 라작(Najib Razak) 전총리 횡령 및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 중

- 나집 전총리는 국부펀드 1MDB(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10억 달러 규모의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
- 말레이시아 반 부패위원회(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MACC)는 나집 전 총리가 권력에서 물러난 지 2주만에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새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 당국의 1MDB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싱가포르 법원도 1MDB와 연루된 1,530만 싱가포르 달러(약 125억원)의 반환을 명하는 등 양국간 원활한 공조가 이루어 지고 있음.

사회동향

• 마하티르 정부, 민족간 갈등요소인 말레이계 우대정책에 대한 재검토

- 민족 구성(말레이계 50%, 중국계 23%, 인도계 7%)이 복잡하고, 중국계에 부가 편중되어 있음. 정부는 1969년 부의 편중으로 인해 말레이계와 중국계 간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1971년부터 부모 중 1인 이상이 말레이시아 국적을 지닌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부미푸트라)을 실시하고 있음.
- 동 정책으로 말레이계의 소득과 경제적 지위는 많이 향상되었으나, 민족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말레이계 우대정책이 오히려 민족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마하티르 정부는 이러한 말레이계 우대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임.

• 보르네오 섬 지역의 사바(Sabah) 및 사라왁(Sarawak) 주의 지치권 주장

- 11개의 주가 위치한 서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세력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사바와 사라왁 주가 위치한 동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지역은 1957년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자치주로 인정받은바 있음.
- 마하티르 총리는 '1963년 말레이시아 협정'^{*} 체결일인 올해 9월16일에 사바 및 사라왁 주가 연방 내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힘

* 영국과 말레이연방이 체결한 협정으로, 영국은 싱가포르, 사바 및 사라왁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였으며, 해당지역은 말레이 연방의 주로 편입됨.

국제관계

-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부활 및 일본과의 우호관계 증진**
 - 마하티르 총리가 1981년~2003년 집권 시절 추진했던 동방정책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한국·일본 등으로부터 배우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임.
 - 마하티르 총리는 취임 후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과의 연대강화에 특히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첫 해외순방지로 일본을 선택하였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단 선언 등 중국과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우호관계 증진은 중요한 요소임.
 -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일본의 자본, 기술 획득을 위하여 우호관계를 지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ASEAN·미국·싱가포르 등과의 협력관계 유지 노력**
 - ASEAN을 중심으로 지역협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슬람협력기구(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 회원으로 이슬람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과는 말레이시아가 반테러 활동과 지역안정에 의견을 같이 하는 등 관계가 개선된 이후 경제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관광산업 및 무역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와 나집 전 총리 관련 수사에도 적극 공조하는 등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관계 지속 전망**
 - 중국과는 1974년 ASEAN 국가 중 가장 먼저 수교를 맺었으며, 인구의 24%가 중국계인 점을 고려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마하티르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중단·재검토 조치는 국가채무 감소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였으며,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태도

- 총외채규모가 상승하는 추세이나, 주로 중장기 채무 위주로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
- 2013년 이후 총외채규모가 외환보유액을 초과하였으며, 2017년에도 총외채규모(1,758억 달러)가 외환보유액(1,009억 달러)을 상회함.
- 2018년 3월 기준, 말레이시아의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은 4,573.8백만 달러(단기 1,849.8 백만 달러, 중장기 2,724 백만 달러)로, 중장기 외채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외채구조는 안정적인.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 ('18. 6.)	2등급 ('17. 6.)
Moody's	A3 ('17.12.)	A3 ('16. 1.)
Fitch	A- ('18. 3.)	A- ('17. 8.)

- 주요 신용평가사 기존 신용등급 유지
-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 나집 전 총리의 횡령 혐의로 인한 정권신뢰도 하락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신용평가기관 모두 기존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연간 4.2~7.5%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지속한 말레이시아는 2017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9,813 달러이며, 고소득국(1인당 국민소득 12,056 달러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세계은행도 말레이시아는 2020년~2024년 기간 중에 고소득국가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함.
- 독립 61년만에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2018년 5월 취임한 마하티르 총리는 말레이계 우대정책의 재검토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면서도, 민족·지역간의 갈등 요소도 상존하고 있음. 특히 전 국민의 약 23%인 중국계가 말레이시아 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점에서 민족간의 갈등 요소가 상존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상품·서비스세율(GST) 조정 등 세제개혁 등을 통해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기존 인프라 프로젝트의 중단 및 재검토 조치를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관련국과의 갈등의 소지가 있음.